

People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취임

이관섭 사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국민과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직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 소통을 활성화해 열린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우리 기술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전 운영 지원 사업과 해외 원전 수출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일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 하버드대 석사

* 행정고시 27회,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단실 단장, 대통령실 실장 선임행정관,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제1차관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 OECD NEA 부의장 선임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백 부원장은 11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3차 OECD/NEA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임돼 OECD/NEA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백원필 박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전연구부장,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연구개발부원장을 맡아왔으며,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대표적인 원자력 안전 전문가다.

인사동정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11-18

△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비상임위원 위촉

원자력안전기술원

2016-10-25

△ 원자력검사단장 하종태 △ 안전연구단장 이진호 △ 정책부장 정명조

△ 행정부장 이왕준

2016-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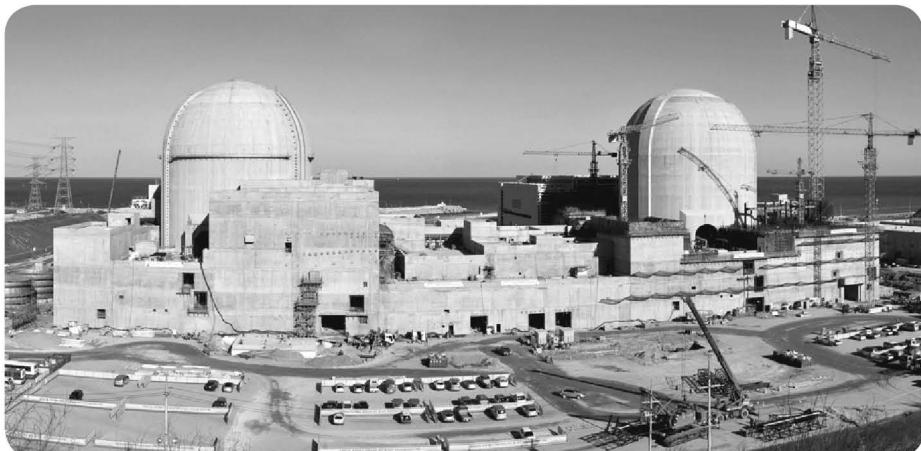
△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원자력검사단 검사사업실장 김석훈

△ 원자력심사단 심사사업실장 정래영 △ 안전연구단 법령기준실장 안승훈

△ 기획부 기획팀장 박정섭 △ 정책부 경영품질팀장 정수진 △ 행정부 인사팀장 이상원 △ 행정부 회계팀장 김용택

신한울 1호기 상온 수압 시험 성공

2018년 4월 준공 예정



신한울 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이관섭)은 11월 17일 신한울 1호기의 시운전 주요 단계인 상온 수압 시험 성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상온 수압 시험은 원전 건설 마감 단계에서 설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계통의 기기와 배관에 설계 압력보다 높은 압력(1.25배)을 가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신한울 1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 및 시공한 최초의 원전으로,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 하는 등 미자립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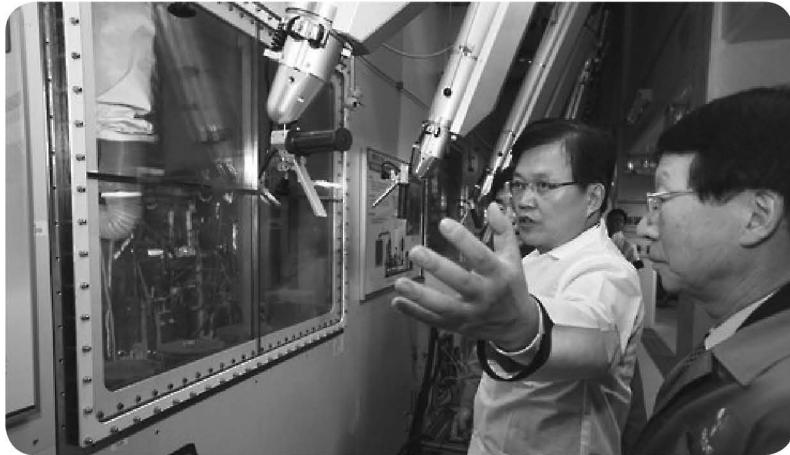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5월 고온기능시험과 9월 연료장전 등을 거쳐 2018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5년 내 반환 시작”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1월 17일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5년 내 원래 있던 곳으로 반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나로 원전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하기로 했다.”며 “용기 차폐 기술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해 5년 이내 이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있다.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반납 의사를 받아들였다고 원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원자력연구원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최 장관은 연구원 내 조사후핵연료 시험시설과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등을 둘러보고 시설관리자, 연구책임자 등과 원자력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연구원이 보관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은 1만9천704 드럼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800드럼씩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1천드럼씩 옮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당초 2035년으로 예정된 이송 완료 시기가 5~6년 앞당겨진다.

최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와 원자력안전정보자료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사성폐기물 이송 실시

KAERI, 하반기 총 3회 걸쳐 416 드럼 경주 방폐장 이송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하반기 이송이 시작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월 23일 새벽 136 드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했으며 하반기 중 총 3회에 걸쳐 416드럼을 운반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매년 800드럼 이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5월)에 384 드럼을 이송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작업복, 방호용품, 실험기기 등 잡고체 등으로,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적어 이송 중의 환경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충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경주 방폐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이송은 주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차량 및 운반용기를 이용하며,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보안 차량의 호송 속에서 진행된다. 운반 요원은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비상 대응 훈련을 마친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송의 모든 과정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안전 요원 등을 통해 철저히 감시된다.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원전 운영 현황 정보 전달 대상자 확대 모집

한국수력원자력,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지진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원전 운영 정보 수신 희망자를 확대 모집하고 있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정보는 정부(기상청 및 국민안전처)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지만, 재난 발생 시 원전 운영 현황 정보를 즉시 알고자 하는 원전 지역 주민 및 일반 국민들을 위해 원전 운영 정보 수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원전 운영정보 수신 희망자는 원전 본부별 인터넷 홈페이지, 원전 자매마을 방문시,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된 정보수신 신청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News Focus

SMS알리미


SMS 알리미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있어 지진 등 재난발생, 계획예방정비, 불시점검 등 우정한 증개를 위해 SMS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수력·영수 발전소 운영 소식 뿐 아니라 사업소(본부) 소식,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신청방법

- 대상 : 회사원 사용기관 누구나
- 방법 : 웹사이트 신청
인터넷 소스 : 사업소 소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식 등 수신받고 싶은 정보 선택
수신처를 전화번호 등 경보기밀번호 등의 풀수)
- 유의사항**
 - 긴급 재난 상황 시에는 재난방역 내용 및 원자력발전소 운영정보 실시간 발송(24시간 이동)
 - 통신사 및 사용기종, 스마트폰에 따라 지점 또는 누락될 수 있음

 SMS알리미 신청하기  SMS알리미 해지하기

문자알림 신청하기

입력하신 연락처로 문자알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자알림을 받아보세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문자 발송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재난 상황시 알림, 원자력발전소·수력·영수 운영, 철광연료
- 수집·이용기간: 신청자 주소 시 즉시 폐기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주소 시 즉시 폐기
-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아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필수입력항목

| | | |
|--|------------------------------------|-------------------------------------|
| *수신정보 | <input type="checkbox"/> 원자력발전소 운영 | <input type="checkbox"/> 사업소, 지자 소식 |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지원 사업 | <input type="checkbox"/> 수력·영수 소식 | |
| ※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경우 긴급 재난 상황시 실시간 발송(24시간 이동) | | |

* 이름

* 연락처 선택하세요

원전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알림 신청화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지진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원전 운영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원전 운영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경주시 전체 세수액의 19.7%인 749억원 납부
경주시 소재 단일 기업으로는 최고 납부액



한수원 본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월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한수원은 그간 약 1조 6천억원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약 3천억원. 이 지방세 중 경주시에 납부한 세금은 한수원 본사 16억원과 월성본부 733억원 등 749억원 규모다. 이 금액은 경주시 세수 3,810억원의 19.7%로, 경주시 소재 단일 기업으로는 단연 최고 납부액이다.

한수원은 향후에도 취득세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자산 단위를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한수원의 노력에 대해 지난 5월 최양식 경주시장은 한수원을 지방세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콜마BNH 1차 수익금 330억원, 성과 극대화에 재투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호 연구소기업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주식을 1차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 330억원에 대한 배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 수익금은 1차 매각대금 총 484억원 중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이다.

이에 따라 1차 매각 수익금의 50%인 약 165억원이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소기업 재출자 및 성과사업화 경비 등에 사용되고, 1차 매각 수익금의 나머지 50%(165억원)는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17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배분된다.

원자력연구원은 2006년,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 및 '화장품 관련 나노기술'을 출자해 한국콜마홀딩스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콜마BNH는 2015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되어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원의 보유 지분 가치는 1,685억원대로 상승했다. 원자력연구원은 '15년 5월, 총 보유주식 중 25%를 매각했고 나머지 75%의 주식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우선적으로 1차 매각 수익금 중 50%에 해당하는 165억원을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소기업 재출자 및 성과 사업화 경비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진 대비 원자력 안전 연구 등 원자력 안전성을 위한 기술 개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한 SEED형 창의 연구 사업 및 신진 연구자 연구개발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R&D) 재투자에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제2, 제3의 콜마BNH 탄생을 위해 신규 연구소기업 출자 및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주)아큐스캔 등 기존 연구소기업에 대한 추가 출자를 위해서도 수익금을 재투자할 전망이다.